

Everything is Learned IV(모든 것은 학습된다 IV)

라이언 겐더는 이 작품을 통해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의 유명한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반한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앉았던 바위입니다. 그는 이곳을 떠났지만, 그가 존재했던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바위에 움푹 패인 부분은 그가 얼마간 생각에 빠져 앉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생각 이면에 있는 동기는 무엇이였을까요? 그의 생각은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일어서게 했고,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겐더의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이자, 그가 우리들에게 주변 세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